

지역 소식통

정읍시, 수산물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점검 펼쳐

정읍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보양식 수산물 등에 대해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점검을 벌였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별 단속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지역 내 음식점(주어탕·잡어구이 전문점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단속 품목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인 장어, 미꾸라지 등과 횡감용 생선, 간편식 재료인 주꾸미, 낙지, 꽃게 등 유통량이 급증하는 수산물이다.

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진공모전

고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민철)는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살예방의 날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기념일로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9월 10일을 기념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생명사랑과 자살예방'을 주제로 8월 한달간 사진공모전을 진행하고 9월부터 진행되는 '전북이네, 마음살롱' 고창점에서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자살예방의 날 기념 생명사랑 사진공모전은 고창군에 거주하거나 고창군 소재 학교, 직장을 다니는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이메일 혹은 방문접수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고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지역 주민이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함께 생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전 시민 '일상 회복지원금'

정읍시, 1인당 20만원 추석 전 지급

정읍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일상 회복지원금'을 지원한다.

이하수 시장과 고경운 시의회 의장은 3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일상 회복과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읍시 일상 회복지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정읍시와 정읍시의회는 코로나19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전 시민에게 일상 회복지원금을 지원해 생활 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 시민 대상 일상 회복지원금은 지난 7월 1일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정읍시가 민생안정과 코로나19 사태 조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읍시의회와 협의해 발 빠르게 추진



한 대책이다.

관련해 이 시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 달 1일 일상 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400억 확대 발행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 검토를 민선 8기 제1호로 결재한 바 있다.

일상 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정읍시에 주소를 둔 106,400여 명이 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약 214억 원(인건비 등 포함)의 예산이 소요된다.

지원금은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전까지 무기한 선불

카드 형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선불카드는 대형마트와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지역 내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 4,600여 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 방법은 오는 8일부터 9월 2일까지 4주간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기간 많은 시민이 몰릴 것에 대비해 생년월일 끝자리 5부제를 적용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거동 불편 시민과 중증 장애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지급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가계 부담 완화는 물론,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경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 보안면(면장 신철호)은 지난 3일 극심한 생활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게 민간 의료지원(의료서비스)을 연계했다고 밝혔다.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최선을"

부안 보안면, 의료 사각지대 대상자 민간 의료지원 연계 화제

부안 보안면(면장 신철호)은 지난 3일 극심한 생활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게 민간 의료지원(의료서비스)을 연계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가족과 단절된 후 식당에서 일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왔으나 오랜 식당일로 악화된 류마티스와 고관절 질환으로 일자리를 잃었고,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며 건강이 더 악화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의료서비스 연계가 시급한 상황에서 전주시 소재의 한마음요양병원(원장 최경수, 최충수)이 대상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 처방지원까지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였고 빠른 업무처리로 대상자는 서비스 연계 하루 만에 병원 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신철호 보안면장은 "현재 보안면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총력을 다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으나 대상자 발굴 건수에 비해 의료 사각지대 대상자들이 원하는 의료서비스 연계 지원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선뜻 도움을 주신 한마음요양병원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보안면은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친환경 우유 생산 메카로 입지 굳혀

깨끗하고 위생적인 우유 생산 위해 착유시설 개보수 등 올해 6개사업 8억여원 지원

고창군이 고품질 우유생산으로 '유기농 우유 1번지'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3일 고창군에 따르면 낙농가의 환경 개선과 깨끗하고 위생적인 우유 생산을 위해 착유시설 개보수 등 올해 6개 사업에 8억여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낙농가에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문적 인력을 보충해 주는 '낙농헬퍼 지원사업'으로 노동환경이 개선돼 낙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냉각기와 유두세척기를 지원하는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 지원사업'은 신선한 우유 보관 및 유통업 예방으로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을 높이고 있다.

무상우유급식에는 모두 2억3000만원을 투입해 고창지역 총 41개교(초등학교 21, 중등14, 고등6) 저소득층과 일부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우유를 지원해 성장기 어린이가 체위 향상과 우유소비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다양한 낙농 사업의 효과로 현재 고창군에선 60여 켤소 농가가 고품질

우유를 하루 130톤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유기농 우유는 20여 농가에서 하루 63톤의 생산하고 있다. 전국 유기농 우유 생산량이 하루 100톤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고창군의 유기우유 점유율은 63%에 이른다.

고창군청 박동열 축산팀장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청정 고창에서 깨끗하고 건강한 우유를 생산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해수욕장 근무자 격려 방문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2일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관내 해수욕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요원, 방역요원, 자원봉사자들을 격려차 해수욕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해수욕장 방문은 관광객의 안전과 불편해소 등을 위해 폭염 속에서 근무하는 해수욕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날 변산과 고사포 경포 모항 등 주요 해수욕장을 찾아 코로나19예방을 위한 방역상황과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을 보고받고

해수욕장별 예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폐장 시까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 및 방역관리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을 여름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관내 해수욕장을 방문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폐장 시까지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과 쾌적한 환경 제공 등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는 물론 해수욕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농약 안전관리로 자살 없는 농촌 추진

정읍시가 농약으로 인한 농촌 자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농촌지역의 주된 자살 수단으로 사용되는 농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충동적인 음독자살 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농약 안전 보관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 보관함 보급사업은 농약 안전 보관함 보급을 통해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관련해 시는 지난 2일 사업 대상지로 신규 지정된 대시리 대서마을에서 '2022년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석주 면장과 오승현 시의원 정읍시 정신건강보건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관제막식과 생명사랑 마을사업 소개, 주요 추진일정, 자살예방 방지 교육 등이



진행했다.

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한국 자살예방협회 농약 보관함 보급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7년부터 현재까지 54개 마을에 농약 보관함 1,633개를 보급했다.

또한 해당 마을 주민에 대한 우울선별검사와 자살 예방 교육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자살률을 낮추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